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속담연구 고찰*

박 미 경**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한국의 속담집과 다카하시 도루
 3. 다카하시 도루의 속담집에 나타난 조선 문화 인식
 4. 다카하시 도루의 속담집의 오역사례
 5.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속담 연구의 계승
 6. 맺음말
-

1. 들어가는 말

일본인에 의한 조선연구는 1902년부터 한국연구회의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조선고서간행회(1908) 조선연구회(1911) 자유토구사(1920) 등의 단체에 의해 우리 고전이 수집되고 간행되었는데, 이는 식민통치의 기초를 세우려는 총독부의 막대한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¹⁾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이하 다카하시라고 칭함.)²⁾ 역시 1903년 한성관립중학교 교사의 신분으로 한국에 온 후 1945년까지 줄곧 한국에서 생활한 조선 연구자이다. 그동안 그는 조선총독부의 위촉을 받아 종교 조사, 각지의 문헌 수집, 불교, 유교, 민요 등 조선의 전통문화 전반에 걸친 연구에 종사하는 한편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역임했다. 1940년에는 조선총독부로부터 조선유학에 대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조선 문화 공로훈장을 받기도 했다.

다카하시의 조선 활동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철학과 조선유학 분야에서만 치우친 경향이 있으며³⁾ 최근, 국문학 분야에서 그의 문학연구를 다룬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정도

* 이 논문은 2008년도 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 연구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KRF-2003-073-AM1002)

**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일본고전문학

1) 최혜주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권, 2005.3

2) 다카하시 도루의 연보와 저술목록은 『조선학보』 제14집 高橋亨先生頌壽記念号(1959), 제48집 高橋亨先生記念号(1968)에 자세하다. 참조 바람.

3) 『조선의 유학』 다카하시 도루 지음, 조남호 옮김 조합공동체 소나무 1999.12,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일제 황국사관의 빛과 그림자』 다카하시 도루 지음 이형성 편역 예문서원 2001.6

윤사순 高橋亨의 韓國儒學觀 檢討 『韓國學』 제 12집 중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76, 윤사순 「韓國儒學의 諸問題」 『韓國學報』 제6집 一志社 1977, 이기백 「半島의 性格論 批判」 『韓國史市民講座』 창간호

에 그치고 있다.⁴⁾ 그러나 다카하시의 위와 같은 이력을 고려한다면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그의 조선활동의 내용이 보다 자세히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다카하시의 조선연구 중에서 본고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그의 속담연구이다. 그는 조선의 민담과 속담을 모은 『조선 민담집 부록 속담(朝鮮の物語集附俚諺)』(1910)과 『조선 속담집 부록 민담(朝鮮の俚諺集附物語)』(1914)을 저술했는데 이는 당시까지 조선에서 거의 주목받지 않았던 속담연구를 처음으로 학문적 관심영역으로 등장시켰다는 점, 더구나 이것이 일본인의 조선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가 식민통치자료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고는 종래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다카하시의 속담연구를 분석하여 일제시대 일본인이 조선문화를 어떻게 이해했으며 후대에 이것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본 지식인이 한국의 근대 지식 형성에 끼친 영향의 한 측면을 밝혀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먼저 다카하시의 속담연구 이전의 조선의 속담연구의 계보에 대해 개관해 보고 다카하시의 속담연구의 동기, 그의 속담연구에 나타난 조선 인식, 속담에 대한 오역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그가 조선의 속담을 어떻게 소개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조선문화를 읽어내고자 했는지 살펴보겠다. 또한 그의 속담연구가 그 이후 한국의 속담연구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2. 한국의 속담집과 다카하시 도루

(1) 한국의 속담연구 개관

속담이란 민간에 널리 분포된 구비적인 세언으로서 사회적 환경의 각인이 찍혀져 있는 말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민간의 대중적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정신적 소산으로 우수한 문학이요 철학이요 처세훈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한 민족이나 국민의 성장과

일조각 1987, 강진철 「停滯性理論 批判」 『韓國史市民講座』 창간호 일조각 1987, 이태진 「黨派性論 批判」 『韓國史市民講座』 창간호 일조각 1987, 권순철 「高橋亨의 朝鮮思想史研究」 『埼玉大學紀要 教養學部』 33권 1호 1997, 최영성 「高橋亨의 韓國儒學觀 研究」 『철학연구』 74집 2000.5, 이형성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조선유학사 연구의 영향과 극복」 『韓國思想論文選集 201 日帝時期的 宗教界와 歷史學』 2001 불함문화사, 이하배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 유학' 읽기 비판」 『동양사회사상』 10권 2004. 11

4) 박광현 씨는 논문 「경성제대 '조선어학조선문학'강좌 연구-다카하시 토오루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비교문학의 전망』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3.12)에서 다카하시 도루와 경성제국대학의 '조선문학'강좌 및 '조선문학 연구와의 관련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해방 후의 국문학사의 성립과정에 있어서의 다카하시의 영향도 시사해 주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하겠다.

기질이 반영되며, 도덕과 신앙이 표현되어 있다⁵⁾고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속담에는 그 겨레의 역사, 사상, 풍속, 관습, 신앙, 제도 등의 일반인의 생활 현상 전반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민족의 사고와 행동양식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담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20세기 초로 그리 오래지 않다.

문헌상에 기록된 우리의 속담 명칭은 俚言(『삼국유사』) 諺(『세종실록』) 常言(『朴通事』) 俗談(유몽인 『於野談』) 俗語(이수광 『芝峯類說』) 里諺(이익 『星湖僿說』) 俗諺·鄙諺·方言(홍만중 『旬五志』) 方言(이덕무 『洙上方言』) 東諺(정약용 『耳談續纂』) 등으로 불리었다⁶⁾. 또한 이러한 각각의 용어가 의미하는 바도 서로 각각 달라서 현재 일반적으로 소위 속담이라 불리는 것과 같이 일정한 형식으로 규격화된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긴 설화적 이야기부터 경구적인 간단한 단어나 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포괄적이다. 조선 초까지의 문헌에는 속담이 단편적인 기록으로만 남아 있던 것이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속담집이라 부를만한 문헌이 탄생하게 된다⁷⁾. 이후 1900년 이전에 성립된 속담집⁸⁾들은 정형화, 비정형화의 차이는 있지만 한자로 번역된 속담집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가진다. 19세기까지의 한국의 속담집이 모두 漢譯으로 이루어진 특징을 가지는 데는 조선조의 양반들이 점잖고 고상한 것을 중시하던 것과 관련한다⁹⁾. 즉 속담의 소재가 대중의 일상 생활환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대상인 만큼 어휘 면에서의 卑俗性은 필연적이다. 또한 조선조의 양반들은 속담의 이러한 卑俗性을 꺼려 속담을 한자의 고사성어와 같은 형태로 바꾸어 사용하기는 했어도 원래의 구어 형태로는 잘 사용하지 않았다¹⁰⁾. 이처럼 우리 선인들 특히 문화 활동의 주역이었던 사대부들이 유가경전만을 중시하고 속담을 비속한 것으로

5) 박갑주 「언어에 관한 속담」 『연포 이하운 선생 회갑 논문집』 진수당 1966
 6) 김상홍 茶山의 『耳談續纂』 『한문교육연구』 1986
 7) 심재기 「俗談辭典 編纂史草」 『새국어생활』 제4권 제2호 1994, 신명숙 「俗談研究의 課題와 展望 研究史를 中心으로-」 『국문학논집』 16호 1999
 8) 1900년 이전에 성립된 속담집을, 심재기(『俗談辭典 編纂史草』 『새국어생활』 제4권 제2호 1994) 신명숙(『俗談研究의 課題와 展望 研究史를 中心으로-』 『국문학논집』 16호 1999)의 논문과 김상홍(茶山의 『耳談續纂』 研究 『한문교육연구』 1986, 星湖의 百諺解考 『교육논총(단국대)』 2권 1986), 윤미길(『洪萬宗의 道家思想과 歷史意識-五旬志를 中心으로-』 『논문집(원광대)』 29) 등의 관련 논문을 참고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洪萬宗(1610-1690) 『旬五志』 (143): 우리나라 최초의 한역 속담집 143개의속담을 한역. 배열 방식은 한역한 글자 수에 따라 배열 (2)李翼(1681-1763) 『百諺解』 (389): 글자 수를 모두 4인 2구로 정형화. 어의 주석 없음. (3)愼後聃(1702-1761) 『察遜錄』 (52): 글자수 자유롭게 한역. 어의 주석 없음. (4)李德懋(1741-1793) 『洙上方言』 (99): 약간의 예외도 있으나 3인 2구로 정형화. 매 속담마다 어의를 주석. (5)李義鳳(1733-1801) 『東韓譯語』 (106): 古今釋林의 일부로, 한역이나 부분적으로 우리말 원문이 함께 적힌. (6)丁若鏞(1762-1836) 『耳談續纂』 (210): 4인 2구로 정형화하여 한역하고 어의를 주석. (7)趙在三(1808-1866) 『松南雜識』 (236): 자유롭게 한역하고 어의를 주석. (8)좌자미상(19세기말) 『東言解』 (425): 자유롭게 한역하고 어의를 주석. 한문 번역형으로 수집된 최대의 속담집. (9)劉松田(?) 『耳談續纂拾遺』 (31): 정약용의 『耳談續纂』 에 없는 속담을 보충한 것 4인 2구로 한역하고 주석
 9) 심재기 「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 『관악어문연구』 제7권 제2호 1982
 10) 주 9)의 심재기 논문(『俗談의 綜合的 檢討를 爲하여』 『관악어문연구』 제7권 제2호 1982)

경시하여 결국 한국의 속담 수집이 19세기까지는 모두 漢譯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의 속담집은 본래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본격적인 우리 속담집의 출발은 언제 어디서부터일까.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994년 『새국어생활』 여름호에 특집으로 「한국의 속담」을 마련하고 있는데, 심재기 씨는 「俗談辭典編纂史草」라는 논문에서 「오늘날의 안목으로 속담사전에 준하는 것들을 망라하여」분류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속담사전 편찬사는 19세기 말을 기점으로 그 특징이 양분된다. 즉 19세기 이전의 문헌들은 속담의 표기가 모두 한문이며 문집의 일부로 수집된 정도로 독립적인 속담사전이 아니다. 그리고 19세기말까지의 속담집이 한문 번역형인 반면에 20세기 이후는 원문대로 채록되어 정리되는 본격적인 속담 자료집이 편찬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심재기 씨¹¹⁾는 1900년대에서 1950년대까지의 우리의 속담편찬사를 정리·평가하고 있는데, 1959년에 이기문에 의해 만들어진 『속담사전』의 머리말에 보이는 다음의 인용을 그대로 재인용하면서,

그동안 외국인으로서 우리 속담에 관심을 가진 이가 더러 있어서 제일의 辭課指南(1916) 속에 200여의 속담을 한글원문, 영어번역, 해석의 순서로 늘어놓은 것이 있었고 한편 일본인들이 일본어로 번역하여 간행한 우리나라 속담집으로 두 가지(高橋亨 朝鮮俚諺集 附物語; 조선총독부, 조선민속자료 제3편)가 있었으나 별로 들어 말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의 속담 편찬사를 최원식의 『朝鮮俚諺』(1913)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최근 속담연구의 과제와 전망을 논한 논문에서 신명숙 씨¹²⁾는 속담편찬사는 심재기 씨에 의한 논의가 있어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1950년대 이전까지의 연구사를 개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00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속담 자료집이 편찬되니 최원식이 편찬한 『朝鮮俚諺』(1913)에서 비롯된 속담수집 사업은 김사엽·방종현의 『俗談大辭典』(1940)에 이르러 그 집대성을 이루게 된다.

즉 최근의 연구에서는 다카하시의 속담집을 비롯해 일본인에 의한 한국의 속담집은 등한시 되는 단계를 지나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말 그동안의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들 속담집은 「별로 들어 말할 것이 못 되」는 것일까? 그는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다카하시의 『조선 속담집 부록 민담』

11) 주 8)의 심재기 논문(「俗談辭典 編纂史草」 『새국어생활』 제 4권 제 2호 1994)

12) 주 8)의 신명숙 논문(「俗談研究의 課題와 展望-研究史를 中心으로-」 『국문학논집』 16호 1999)

(1914)은 실은 『조선 민담집 부록 속담』(1910)의 증보판으로 「우리나라 속담사전의 先鞭」¹³⁾으로 일컬어지는 최원식의 『朝鮮俚諺』(1913)보다 앞선다. 심재기 씨의 지적대로 우리의 속담집이 19세기말을 지점으로 크게 양분되는 양상이 인정된다면 그 양분화의 계기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수반될 때 한국 속담편찬사를 올바르게 조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의미에서도 일본인에 의한 이들 속담집에 대한 고찰은 불가결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 속담수집 사업의 큰 열매」로 평가받고 있는 김사엽, 방종현의 『俗談大辭典』(1940)은 속담을 ㄱ ㄴ순으로 배열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지만, 조선총독부발행 『조선민속자료 제3편 朝鮮俚諺集』(1926)은 그보다 앞서 이미 속담을 ㄱ ㄴ순으로 배열¹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일본인에 의해 간행된 속담집은 한국의 속담편찬사에서 결코 등한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산발적으로 간행된 속담사전들의 선후 영향관계를 밝히는 등의 기초 작업조차 미비한 현황이어서 속담사전의 역사적 전개를 논의할 수 없는¹⁵⁾ 우리의 형편을 생각할 때 더욱 그 재고가 시급하다 하겠다.

(2) 다카하시의 조선속담연구의 동기

다카하시는 한일합방 초기에 『조선 민담집 부록 속담』(1910)과 『조선 속담집 부록 민담』(1914)을 저술하였는데 이보다 앞서 그는 1903년 조선에 온 이래 6년에 걸친 연구와 문법을 가르친 체험을 집대성하여 『韓語文典』(1909)을 출간하였다. 여기서 그는 「정부 주도의 조선경영의 시대는 가고, 전 국민이 혼연일체로 조선의 啓發誘導에 종사해야 할 시대가 도래」했음을 역설함과 동시에 국민적 경영의 최대 요건중의 하나가 「日韓言語의 교환」에 있음을 강조한다.¹⁶⁾ 결국 그가 이러한 조선경영의 국민적 사명감을 전면에 내세우며 발행한 첫 저서가 『韓語文典』이며, 이에 연이어 출간된 것이 이들 속담집이다.

1910년에 간행된 『조선 민담집 부록 속담』에는 모두 547개의 속담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토대로 1914년에 발행된 『조선 속담집 부록 민담』에는 모두 1298개의 속담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 속담집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속담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련번호를 매겨 나열하고 의미를 병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서민 생활에 뿌리내린 민간전승 신앙이나 지방의 속담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또한 속담의 이해를 위한 속담의 성립배경이나 당시의 사회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주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카하시의 속담연구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가

13) 이기문 『속담사전』 민중서관 1962

14) 최원식의 『朝鮮俚諺』(1913)의 경우 속담은 무작위로 나열하여 게재하고 있지만 ㄱ ㄴ순의 색인을 첨부하고 있어 주목된다.

15) 주 8)의 심재기 논문(「俗談辭典 編纂史草」 『새국어생활』 제 4권 제 2호 1994)

16) 다카하시의 첫 저서인 『韓語文典』(博文館 1909. 6)의 自序

1914년판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속담연구의 동기를 살펴보자.

나는 『조선민담 부록 속담』에서 조선속담의 일부를 모아 이것을 일반에게 공개했는데 그 이후 4년간 여기에公私 다 방면으로 모든 편의를 제공받아 더욱 넓고 상세히 속담을 수집할 수 있었고, 거의 모든 조선속담을 전부를 내 책 속에 담을 수 있게 되어 이에 앞서 출판한 저서를 개정하여 속담을 주로 하고 민담을 부록으로 덧붙여 본서를 완성하였다.

그는 1910년판을 낸 이후 여러 방면의 속담을 「公私 다 방면으로 모든 편의를 제공받」 으면서 조사, 수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거의 모든 조선 속담」 을 수록하였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게다가 그는 속담 채록과정에서의 경험을, 「단순히 속담 그 자체로 보는 것도 자극적이고 함축성이 풍부한 맛을 지니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그 속담이 행해지는 사회사정을 밝히는데 있어서 이것을 깊이 음미하면 한층 자극되어 춤추듯이 의의가 생동하는 것」 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즉, 다카하시의 조선의 속담연구를 통해 조선 사회의 사정을 밝히고 음미하는 작업을 「춤추듯이 의의가 생동」 하는 것으로, 자신이 조선 실지의 문화를 경험적으로 이해해 나갔던 상황을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속담연구에는 그의 조선인식이 기본적으로 배어 있었고, 또한 속담을 채록하는 과정은 조선인식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또, 그는 자신의 조선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의 사회 연구는 각종 방면의 연구를 종합하여 이루어져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우선 내가 지금까지 연구에 착수해 온 조선의 사상 및 신앙 즉 철학 및 종교로 보면 조선 사회의 내면에 넘치는 특성으로 대략 여섯 가지를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1.사상의 고착성, 2.사상의 무창견(無創見;사상면의 독창적인 의견이 없다-역자주), 3.무사태평, 4.문약(文弱) 5.당파심, 6.형식주의가 그것이다.모두 이 나라의 지질, 지리 내지 사회조직에 뿌리내려 성립된 것이다.

요컨대 다카하시의 철학 및 종교에 관한 자신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선사회의 내면에 넘치는 특성」을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고,

사상의 고착성이란 한번 시인하여 내 사상으로 삼은 이상은 시간의 흐름에 초월하여 언제까지나 이것을 꼭 움켜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상의 무창견(無創見)이란 철학 및 종교에 있어서 중국사상 외에 조선에서 독립적으로 창조된 사상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무사태평이란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하여 서두르는 것이 없고 아주 슬퍼할만 하고 실망할 만한 경우에 처해서도 용케 낙천적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문약이란 문(文)을 숭상하고 무(武)를 업신여겨 결국 늙름한 무예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다. 형식주의란 형식을 뒤돌아보아 실(實)을 잊으며, 이름을 얻고 실(實)을 뒤돌아보지 않음을 이르는 것이다.

라고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는 「상하 2천년의 조선 역사는 이 6가지 성향의 구체화」라고 단언하고 따라서 현재에도 「조선인은 부지불식간에 이 6제도 위를 오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뿐 아니라 이 6가지 성향이 바로 「조선 민족성의 상식적인 해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조선의 속담도 먼저 이들 6가지 민족성을 마음에 두고 이것을 음미하면 꿀을 빨다가 혀를 잊고, 말에 올라타 안장을 잊는 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다시 자신의 속담집의 부족한 점으로는 제반 항목으로 분류하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이 저술의 「가치에 증감이 없다」고 하여 조선 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과연 그의 조선 문화에 대한 인식이 그의 자부심만큼 온당한 내용일까? 그렇다면 다카하시가 편찬한 이 속담집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다카하시 도루의 속담연구에 나타난 조선 문화인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10년에 간행된 『조선 민담집 부록 속담』에는 모두 547개의 속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증보하여 간행한 『조선 속담집 부록 민담』(1914)은 모두 1298개의 속담이 수록되어 있다. 그 체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속담을 일본어로 번역하여 일련번호를 매겨 나열하고 의미를 병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1914년 증보판을 대상¹⁷⁾으로 하여 속담의 내용과 그 주석을 분석하기로 한다. 특히 다카하시가 속담에 대해 해설을 붙이고 있는 점을 주목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는 다이쇼 기의 문어체 일본어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¹⁸⁾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하였음을 밝혀둔다.

다음의 속담에 딸린 주석은 그가 강조한 조선 민족의 6가지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181산 입에 거미줄 치라

주: 살아있는 한 죽지는 않는다 오늘 밤 먹을 것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곰방대에 가느다란 실같은 연기를 피우는 이 나라 사람의 낙천관을 토로 하고 있는 것이다.

383황소 불알 떨어지면 구워먹으려고 다리미 불 담아 다닌다.

17) 1910년에 출간된 내용은 264, 321, 366, 484, 490이 누락된 정도로 거의 그대로 1914년 증보판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18) 다카하시의 문체(표현)를 가급적이면 그대로 살리기 위해 다소 부자연스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속담 번역은 일부러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속담형식으로 바꾸지 않았다.

주:실로 기상천외하다 할만하다. 이러한 추론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다. 정말이지 무사태평하고 누긋하며 근로를 싫어하는 이 나라의 빈들빈들 놀고 게으른 국민의 어리석음을 명쾌히 설파하고 있다.

[479]19)다동(茶洞)의 늦잠

주:경성의 다동은 옛날에 부자들이 많이 살아서 집집마다 대부분이 늦게 일어나는 것이 습관이었다. 아침 해가 높이 떠 있는데도 아직 방을 나가지 않는다. 늦잠은 조선인의 이상적인 생활의 하나이다.

[97]여름날 하루 놀면 겨울에 얼흘 굶는다.

주:의미 자명. 조선의 농부도 여름에는 일을 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81번 속담에서 다카하시는 당장 오늘 저녁끼니가 없어도 산 입에 거미줄 칠 리 없다는 낙천관에 빠져 유유자적 곰방대만 물고 있는 조선인을 보고 있는가 하면 383번 속담에서도 역시 성실히 일하는 근면한 모습과는 거리가 먼 기회주의적이고 마냥 게으르고 무사태평하며 근로를 싫어하는 조선인을 이야기한다. 한편 이러한 나태하고 게으른 조선인 상이 [479][97]번 속담의 주에서도 엿보인다. 즉 부자들처럼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까지 늦잠을 자는 생활이 조선의 일반 서민이 꿈꾸는 이상적 생활이며, 그 게으르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조선의 농부조차 여름에는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이면에 있는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조선 민족은 이처럼 근로를 싫어하고 게으른 뿐만 아니라,

226[773]주인집 장 떨어지자 나그네 국 마단다

이 나라는 10년 전까지는 국토 특히 태평하고 백성은 무지하여 생을 즐기며 보내왔다. 그래서 인심역시 자연히 후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도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고, 목기를 구하면 이를 허락해야 하는 것이 관습이었다. 이를 목게 하면 반드시 다른 것은 없어도 된장국을 대접하는 것이 법도이다. 그런데 마침 이 날 주인은 된장이 떨어져 어찌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목고 있는 객이 자기는 된장국을 싫어한다고 말했다는 의미로, 일이 아주 잘 맞아 떨어져 더할 나위 없다는 뜻과 마찬가지이다.

[150]비단 한 필을 하루에 찌려고 하지 말고 가죽을 하나 줄여라

[15]열 명이 버는 것보다 가죽 하나를 줄여라

주:소극적인 이 나라의 경제주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오랜 옛날부터 양반 대가에 노비, 친척과 같이 기식하는 사람 등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이리라

19) 인용한 속담의 모든 번호는 다카하시가 매긴 일련번호이다. 단 1910년에 출판된 속담은 괄호 없이 다카하시의 고유 번호를 인용하였고, 1914년에 출판된 속담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에 []를 붙여 구분하였다. 1910년 출판과 1914년 출판에 중복 수록된 속담의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구분하여 양쪽의 고유 번호를 모두 소개하였다.

대책 없이 가족을 늘리고 지나치게 많은 식객을 거느리는 등 경제관념이 빈약하고 소극적이기까지 한 조선인의 모습을 보고 있다.

또, 스스로 화를 자초할 만큼 多辯하고(177), 뻔뻔하며([100]),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172])고 인식한다. 특히 조선인의 보수적인 성향에 관해서는 총독부의 시정에 참고할 만하다는 충고도 잊지 않는다.

177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옛 하나라도 사 줄 것을

주:多辯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 나라 사람만큼 말 많은 것도 드물 것이다. 또한 때때로 너무 말하여 화를 자초하는 경우가 있음을 깨닫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386[928]힘센 동자를 얻으려 하지 말고 말 잘하는 동자를 얻어라.

주:이 나라가 얼마나 언어를 중시하는지를 알 것이다.

[100]얼굴 가죽이 땅처럼 두껍다. 주: 조선인에는 이런 사람이 꽤 많다

[172]옛 법을 개정하지 말고 새로운 법을 내지도 말라

주:그저 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이다. 조선인의 보수적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위정자가 참고할 만하다.

그 뿐만 아니라,

[152]웃 입은 거지는 얻는 것이 있지만 벌거벗은 거지는 얻는 것이 없다.

주:묘한 말이다. 웃차림이 사람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을 보아야 할 것이다

[1095]과거급제는 못하고 그저 倡夫(광대)를 선도하게 한다

[1227]속웃 벗고 은가락지

주:속웃도 입지 않은 사람이 은반지를 끼는 것은 분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속담에서 걸치레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면을 보거나, 「냉수 먹고 이 썬시기([217]) 「마른 생선 찢고 손 빨기([218])」 「미꾸라지국 먹고 용트림 한다(56[603])」 등 에서는 실속은 없으면서 겉모양만 그럴 듯하게 꾸미고, 작은 일을 큰 일인 체 하고 남에게 거짓 태도를 보이는 등 그럴 것까지도 없는 일에 과장되게 행동하는 체면위주의 조선인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카하시의 속담집이 위에서 검토해 본 것과 같이 조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만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밖의 다카하시의 속담집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조선의 풍습, 사회상에 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주를 달고 있어서 속담의 성립 배경이나 당시의 사회 상황을 엿 볼 수 있어 당시의 조선의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자료로써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래 표의 속담 212번의 경우와 같이 개고기를 먹는 한국의 풍속과 함께 된

장을 이용한 요리법 등, 당해 속담의 이해를 위해 구체적인 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137[684]에서는 삼국지 등이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정도로 조선사회의 남녀노소에게 널리 읽혀 공유되고 있던 대중의 문화였음을 엿볼 수도 있는가 하면, [80]에서는 서민들의 소박한 꿈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다카하시는 조선의 풍습, 사회상에 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주를 달고 있어서 주를 통해 다카하시가 당시 조선 사회의 어떤 면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조선 사회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즉, 그는 조선의 속담을 통해 낙후된 조선의 교육제도 (77, 528[1068]), 부정직한 사회풍조 (349[892], 468[1010]), 고부간의 갈등을 비롯한 계층 간의 위화감(127, 283[828]) 등이 반영된 신분, 계급에 관한 속담, 가난한 대중들(141, 382[924], 526[1066])과 지배층의 가혹한 착취와 수탈([1118], [1195]), 열악한 산림과 낙후된 농업(산업)시설(545[1085]) 등을 보고 있다

번호	속담	다카하시의 주
77	이쁜 아이에게는 매질을 많이 해라.	매는 이 나라의 아동교육에 가장 필요한 도구이다. 가정도 그러하고 학교도 그러하다. 이것 또한 조선 아동의 어른에 대해 매우 순종적인 한 원인이다.
80	옷은 시집갈 때처럼 음식은 8월 15일 같으면 좋겠다.	일생 최고의 화려한 옷이니 시집갈 때의 옷을 입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8월 15일 대보름날 밤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을 선조에게 바치고 자기들도 먹는다. 연중 맛있는 음식이 가장 풍부한 날이다. 항상 그랬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도 과연 의당하다.
111	술뚜껑에 엿을 놓았나	화롯가에 엿을 붙여 놓으면 금방 녹아 내린다. 아마 잠시도 이것을 내뿜개쳐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이 아주 급한 손님이 주인의 만류도 듣지 않고 황급히 서둘러 돌아가려고 할 때에 이 속담을 사용한다.
112	전라도 사람에게는 밥상을 두 개	전라도는 조선 8도중 가장 인기가 없다고 한다. 표리반복이 자주 변하고, 신의 성질은 한 점도 없다. 입으로 말하는 마음과 속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밥을 먹일 때는 상을 두 개 내는 것일 것이다. 하나는 겉모습의 표면적인 그에게 먹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적인 그에게 먹이는 것이다.
113	파리 수보다 기생 수가 셋 많다.	경상남도 진주의 속담이다. 진주는 예로부터 북쪽의 평양에 대비되는 기생의 명소이다. 한발짝 진주에 들어 놓으면 집집이 기생집이 아닌 데가 없다. 진주는 기생으로 유명하며 또 한 쉬파리(蒼蠅)로도 유명하다.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정말로 달콤한 향미가 있는 곳에는 소리를 내며 무수의 파리떼가 모여들어 밥은 하얗지 않고 언제나 시꺼멓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파리 수 보다 기생 수가 오히려 셋 많다는 것이다.
127	수염이 석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풍채만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自活하지 못해서는 역시 천민이라는 뜻이다. 이 속담은 예로부터 이 나라 사회의 계급조직에 대한 반항적인 민중의 소리라 할 수 있는데, 즉 양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날의 끼니를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평민 위에서 서서 이들을 노비 취급함으로써 평민은 자못 무상함을 느껴 누구 할 것 없이 이러한 속담을 외치며 뒤에서 양반을 비웃었던 것이리라.

[128]	염불 못하는 중이 아궁이에 불지핀다.	모두 염불승을 비유는 말이다. 조선의 승려에는 좌선(坐禪), 간경(看經), 염불의 3종이 있다. 염불업을 최하로 여긴다. 좌선의 끈기력이 없고 간경의 문식(文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배운다. 하루 일만 편 내지 3만편. 새벽부터 밤에 이른다. 이리하여 겨우 절에서 밥을 먹게 된다. 말하자면 허울 좋은 거지승이다. 세 속담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129]	염불에 마음은 없지 만 받을 밥에 마음이 있다.	
313 [130]	노는 입에 염불	
137 [684]	한나라 조자용이 창을 쫓듯이	삼국지는 이 나라의 일반적인 읽을거리이다. 남녀 모두 이것을 탐독하여 유비, 관우, 장비, 공명, 조운 등의 말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특히 부녀자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때면 삼국지의 인물들 이야기를 꺼내서 누가 제일이고 누구를 좋아하냐고 품평회를 하기도 한다. 이 나라의 현부인 某氏는 저를 할 수만 있다면 趙子龍의 아내가 되고 싶다. 그 사람의 강인하고 굳게 변함없는 지조는 玄德 孔明을 능가한다며 조자용이 미망인을 거절한 사실을 들어 말한 이래로 여자들 사이에서는 定論이 되었다. 趙雲은 이 나라 여자들의 이상형이다. 대장부를 형용한 말이다.
[141]	가난한 집에 제사가 온 듯하다.	제사는 조선(朝鮮)의 중대(重大)한 의식이어서 손님인 오는 경우가 많다. 가난한 집에서는 어떻게 이를 대접하랴. 온갖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57 [704]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	한국 사람은 고기는 어디까지나 씹어 먹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고기가 부드러운 것은 오히려 먹을 맛이 안 난다고 하여 질긴 것을 좋아한다. 남에게 길게 훈계할 때 사용한다.
212 [759]	된장 아까와 못 잡아 먹는다.	이 나라의 풍속은 개를 먹는다. 특히 시골에서는 개를 최고 의 진미로 여기며, 음력 가을철기(9월 9일)에는 개를 잡아 먹는 것이 상례이다. 이 날 개고기를 먹지 않으면 잡귀를 피하지 못한다는 미신이 있다. 개고기에는 일종의 약취가 있어 이를 없애는 데는 된장이 좋다고 한다. 그래서 개고기는 된장으로 양념하는 법이라고 한다. 이 속담은 개고기는 먹고 싶지만 양념할 된장이 아까와 개를 잡아먹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다. 인색한자는 결국 손해를 본다의 말이다.
283 [828]	곳은 하고 싶지만 머느리가 무당춤 흥내를 내며 춤추는 것이 밋다.	머느리가 의외로 춤을 잘 출 때는 평소애 미운 머느리가 더욱 밋기 때문이다. 영큼한 사람이 시기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나라는 남녀차별이 지나치게 엄하여 여자는 深閨에 틀어박혀 있어서 마음은 더욱 소극적으로, 뜻은 더욱 좁아져 자연히 고부간도 표면적으로 절대적인 명령복종의 모습을 띠면서 내심 시기심을 깔고 닭아 서로 다투는 일이 지금의 우리 가정 이상인 듯하다. 더욱이 양쪽이 모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 싸움은 상당히 애들 싸움같이 유지하며, 그 싸움의 원인이야말로 포복절도할만한 것이다. 이제 이 나라의 민담을 하나 적어 이를 설명하겠다. [[머느리들의 시어머니 험담]]이라는 제목으로 세 명의 머느리의 사례를 소개함
349 [892]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늙은 3천 6명의 아버지를 가진 늙이다.	거짓말이 아주 싫어해야 할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虛言을 의심하게 하는 이 나라 사회의 반사적 산물이다.
382 [924]	오로지 부싯돌 뿐	부싯돌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백성들의 필수품이었다. 가난은 씻은 듯이 모든 것을 팔아치워 이것 하나 남은 것이다.

468 [1010]	밥 얻으러 갈 새는 있어도 추수를 보러 갈 새는 없다.	게으른 사람을 비웃는 말이다. 조선의 법은 가을 추수시 지주는 밭에 가서 감독을 한다. 그렇지 않으면 <u>소작인에게</u> 속을 우려가 있다.
526 [1066]	가난하면 서울로 나가 살아라	시골에서 가난해진 사람은 집과 밭을 팔아 <u>서울로</u> 나가 막노동을 하는 것은 이 나라의 풍속이다.
528 [1068]	선생님 앞에서 책판 넘기고 있다.	옛날 이 나라의 서당에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소리내어 읽었다. 그러나 결국 아이들도 질려서 실제로 소리를 내어 읽지 않는다. 그저 입을 움직이며 여럿이서 책을 넘길 뿐.
545 [1085]	산이 옷으면 들이 울고 들이 옷으면 산이 운다.	조선의 농지는 수리시설이 없이 그저 내리는 대로 두는 천수에 의존한다. 그래서 홍수로 입은 피해는 아주 드물고 고향으로 흉작이 되는 해는 빈번하다. 이 속담은 이 풍경을 잘 말하는 것이다. 큰 비가 오면 산은 무너져 울지만 들판은 흉작으로 곡물이 넘실대며 웃는다. 가뭄이 들면 산은 무너지지 않지만 흉작으로 들판은 생기가 없다.
[1118]	위의 명령으로 把摠(파홀)되어 관모 걱정	조선의 평민은 모두 병정의 의무가 있다. 한 마을내에 특히 눈에 띄어 집장(什長:인부를 직접 지시 감독하는 인부의 우두머리), 오장(伍長:군대에서 한 오(伍)의 우두머리를 이르던 말)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달갑지도 않은 임명을 받아 그로 인해 관모를 사서 쓰지 않으면 안된다. 흔히 말하는 이른바 달갑지 않은 친절이라는 뜻이다.
[1121]	백정이 양반 흉내 내도 개가 짖는다.	백정은 조선사회중 가장 천한 계급으로 도수(屠獸)를 업으로 한다. 그 중에는 종종 부자가 있다. 타향으로 가서 좋은 옷에 선비 흉내를 내도 예민한 개는 이를 식별하여 심하게 짖는다. 이는 실제로 조선인도 이상하다고 한다.
[1195]	죽은 답에게도 戶稅를 부과한다.	역시 덕천군의 속담이다. 이조 말기 정치가 어지러워져 어린 풀팔이꾼에게까지도 한 사람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이 속담은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248]	주는 물건은 사돈의 개라도 돌려주지 않는다.	조선인은 습득을 가지고 소유권과 동일시함을 알 것이다.

이 밖에도 다카하시는 조선인 및 조선사회에 대한 이상과 같은 부정적 특성 외에 아래의 인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26]남의 집 불구경을 하지 않는 군자는 없다.

주:조선의 시골은 예로부터 남의 집의 화재에 달려가 이를 구하는 일이 없이 대부분 그저 방관하며 태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진화되면 다음날부터 바로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여 재건하는 일에 종사하고 주인은 그저 식사를 대접하기만 하고 수고비를 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집이 서는 것을 본다. 이것은 내가 강원도 지방에서 종종 실제로 경험한 바이다. 이 속담을 가지고 싸잡아서 일률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환난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조선에서의 자신의 체험담을 섞어가며 어려운 일에 상부상조하는 조선사회의 긍정적인

면을 거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역시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목구멍이 포도청」 등과 같이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을 정도로 가난했던 조선인의 모습이나 「맞은 놈은 펴고 자고 때린 놈은 오그리고 잔다」 「뒤로 자 빠져도 코가 깨진다」와 같이 팔자나 운명에 맡기고 그것을 바꾸어 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소극적, 수동적 자세의 속담들이 대다수 소개되고 있다.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인정에 막힌다」 「물이 아니면 건너지 말고 인정이 아니면 사귀지 말라」 「인정이 많으면 한 동네에 시아버가 아홉」 등과 같이 작은 은혜에도 감사할 줄 아는 인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우리 민족의 장점²⁰⁾으로 볼 수 있는 속담을 소개하고 있으면서도 「머리 검은 짐승은 남의 공을 모른다」는 속담부의 주에서는 「머리 검은 짐승이란 사람이다. 感恩의 情操가 부족한 민족성의 산물로 매우 흥미있는 속담이라 하겠다.」와 같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편견에 의해 「큰 것은 남에게 빼앗기고 하찮은 것만 차지하게 되는 경우를 일러 말할 때」 쓰는 속담 「배주고 속(배속) 빌어 먹는다 (172[719])」도 다음과 같이 오역되어 의타심과 그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의 과정을 엮보여 주는 속담으로까지 인식되기에 이르고 있다.

주: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다시 그 사람에게 기대어 생활한다.

이 속담은 교묘히 이 나라의 풍습을 비웃고 욕하여 이쁜 데를 찌르는 것이다. 이 나라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무로 생각한다. 따라서 남의 은혜를 입는 것을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세력가에게 食客이 천명이요, 遊民이 都鄙에 충만하여 現金 時勢가 急轉直下하자 당당한 양반도 금후 10년 조상의 제사를 지켜낼 가능성이 있는 자 겨우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도 안 되는 이유이다. 슬피할 일이다.

다카하시의 속담집에는 「돈 모을 생각 말고 자식에게 공부를 가르쳐라 [470],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와 같이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거나, 「입은 삔뿔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마음을 잘 가지면 죽어도 옳은 귀신 된다」와 같이 정직을 실천 도덕으로 중시했다거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많은 집 장이 쓰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와 같이 자칫하면 말 실수를 하여 대인관계에서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니 남의 권익을 옹호하고 나의 인권을

20) 다카하시와 같이 한국인들은 '손님 대접을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검약할 줄을 모른다든가 친구나 친지에게 의지하는 성향이 있다고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쓰여진 서양인의 한국에 대한 저술들은 한국 민족의 성품이나 기질 그리고 능력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달래를 비롯한 개항기 외국인들이 한국인들과 접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한국인의 특성은 상부상조의 인간관계, 인정이 넘치는 사회(친절함), 외국인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솔직함) 등을 들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인들의 인정에 대한 깊은 감동이었다.(이배용 「서양인이 본 한국근대사회」 『이화사학연구』 28권 2001, 최덕수 「개항기 서양이 바라본 한국인·한국역사」 『민족문화연구』 30집 1997).

신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일러주는 속담 등도 소개되고 있다. 또, 우리 민족의 끈기 있는 굳건한 생활관과 근면 성실한 생활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돌도 십년을 보고 있으면 구멍이 뚫린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든가, 침착성을 강조(「급히 먹은 밥에 목이 멘다 급하면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까」)하거나 인내심을 엿볼 수 있는 속담(「대 끝에서도 삼년이라,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쥐구멍에도 벌 들 날이 있다」)등도 다수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속담의 내용은 다카하시가 서문에서 규정한 6가지의 민족성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 조선인의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상호부조와 근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다카하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선인의 6가지 성향이 바로 「조선 민족성의 상식적인 해설」임을 강조한다. 또한 이 6가지 민족성을 염두해 두고 속담을 읽으면 무한한 재미를 느낄 것이라고도 부연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 주의해 볼 때 그의 속담 연구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말 많아 내실이 없고, 게으르고 무사태평한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론적 필연성을 증명해 주고 각인시키고자 하는 데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총독부 정책 예찬으로 맺고 있는 서문을 보면 잘 드러난다.

도로와 같이 각 도가 다투어 도로를 보수하여 왕년의 조선 제일의 험한 길은 눈에 띄게 줄었다. 토지 조사가 시행되고 소유권이 확정 되어 횡폭한 양반도 상민의 전답에 손하나 까딱할 수 없다. 사회적 계급이 겨우 타파되고 있어서 천민, 평민, 중인, 양반의 차별이 철폐되어 중류사회의 대부분은 스스로 양반이라 칭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직업의 귀천이 마침내 사라져 수입이 많은 것을 숭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조선사회의 표면은 한발 한발 일본을 모방하여 이에 접근해 가고 있다.

고 지적하며, 총독부의 조선지배가 가져온 조선의 변화된 모습, 즉 조선 제일의 험한 길은 보수로 인해 도로사정이 좋아졌다는 점이나, 토지조사가 시행된 결과 토지 소유권이 확정됨으로써 양반으로부터의 상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신분제의 철폐, 직업의 귀천의식을 막론한 부의 추구 등을 지적하며 조선이 일본을 모방하여 「문명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러한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속담은 이 속담집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298]번재의 속담이다.

[1298]옛날에는 빼앗기기 바쁘고 지금은 받기에 바쁘다

이것은 최근 총독부의 施政 이후에 생겨난 일이다. 실로 총독부의 정치는 백성에게 돌려주어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일을 도모해 왔다. 전 조선 왕조가 수탈만 하고 돌려주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백성들에게 이런 느낌이 생겨나는 것도 당연하다.

이 속담이야말로 이러한 일본의 조선통치를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매듭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의 연구가 단순한 학술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조선 지배를 학문적으로 정당화하고, 나아가 식민지 지배를 위한 사상정책론으로도 유용한 연구로 위치했음을 가늠하게 한다.

4. 다카하시 도루의 속담집의 오역사례

그렇다면 이러한 속담연구에 의해 이루어진 다카하시의 조선문화에 대한 인식은 조선 사회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하 이와 관련해 그의 속담집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다카하시의 조선속담집에 수록되어 있는 거의 모든 속담에는 각주가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거의 모든 속담에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가하고자 노력했던 그의 노력은 가히 인정할 만 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각주의 실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검토해 본 것과 같이 다카하시는 조선의 풍습, 사회상에 대한 자세하고도 구체적인 주를 붙여 조선의 속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 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의미 자명」이라는 주라든가 속담 자체의 의미에 관한 설명도 없이, 속담에 대한 다카하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감상)이나 판단을 적고 있는 예도 많이 보인다. 「의미 자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그 속담의 의미 파악이 쉽지 않은 예는 차치하더라도 「일부러 혀를 댈 사람도 없어서」라든가 「독살스런 사람은 보통 이렇다」「실로 너무 가련하다」「뉘가 달겠는가」「불쌍하도다」등과 같이 속담의 이해를 돕는 주라고 하기 어려운 주가 달려 있는 예를 들어 놓은 것이 아래의 표이다.

번호	속담	다카하시의 주
[2]	도끼 가진 놈 바늘 가진 놈을 못이긴다.	무거운 도끼를 정면으로 들어 올려 찍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에 바늘을 가진 놈은 앞으로 나아가서 폭폭 찌르는 데는 당해내지 못한다.
[18]	우물쭈물하다 결국 양녀를 내 며느리 삼는다.	혼인 비용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일 것이다.
[59]	소에게 말한 것은 탄로 나지 않지만 아내에게 말한 것은 탄로 난다.	하지만 용케 아내에게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적다.
[66]	펼 펼 끊어 오르고 있는 안주 맛은 모른다.	일부러 혀를 댈 사람도 없어서
[68]	이쁜 아이에게는 몽둥이를 주고 미운 아이에게는 엿을 준다.	妙語, 奇語. 몽둥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 엿이 먹고 싶으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69]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강보를 준비한다.	이런 집에는 아이가 많이 태어나기 마련이다.
[81]	소처럼 일하고 쥐처럼 먹어라.	이리하여 돈이 남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83]	문어 눈은 작아도 자기 먹을 것은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눈이 있을 필요가 없다.
[85]	나쁜 아내는 백년의 적, 맛있는 된장은 1년의 적	나쁜 아내는 보통 맛있는 된장을 만드니 백 일 년의 적이라 해야 할 것이다.
[108]	웃으면서 사람을 때린다.	독살스러운 사람들은 보통 이렇다.
[453]	나간다 나간다 하면서 아이 셋 낳으면 나갈까	세상에 이런 부부 많다. 그 중에는 이렇게 10 명의 아이를 낳아서 결국 그대로 주저앉는 사람도 있다.
[461]	과부의 불쌍함은 과부가 안다(과부 사정[설움]은 과부가 안다)	실로 너무 가련하다.
469 [1011]	때리는 시늉을 하면 우는 시늉을 한다.	사회는 모두 연극이다.
475 [1017]	시어머니 미워 개 쫓다.	시어머니는 도저히 며느리가 손을 댈 수 없어서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개라도 패서 울분을 푸는 것이다.
486 [1027]	죽은 아이를 업고 다닌다.	불쌍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 형용이다.
527 [1067]	한 푼도 없는 놈이 두 푼 가진 체 한다.	돈은 겉보기보다도 적은 것이 보통이다.
529 [1069]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	이는 인정상 당연하지 않겠는가.
[1102]	말 많은 것은 과부집 하녀	하지만 화제거리를 만드는 것은 과부 아니겠는가
[1103]	끓어 죽는 것은 재상되기 보다 어렵다	따라서 伯夷는 百代에 전해진다.
[1129]	꿀병 곱핥기	뭐가 달겠는가
[1152]	지금 먹기는 콧감이 달다.(우선 먹기는 콧감이 달다)	조선에는 땀감이 많다.
[1182]	꼬치는 탔는데 생선은 날 것이다.	세상에 이런 일을 종종 본다
[1183]	도둑은 주인을 미워한다.	주인이 없어서 마음대로 물건을 훔칠 수 있는 집을 좋아하는 것이다.
[1186]	나이 어린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 줘라.	먼저 세상의 진미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1193]	세상물정 모르는 천재는 발넓은 바보만 못하다.	이것이 종종 학자의 의견이 정치가에게 무시당하는 이유이다.
[1211]	여자의 웃음은 지갑의 눈물	허영은 여자의 천성이다. 여자가 기뻐하면 지갑이 마른다.
[1214]	새 짚신을 사기 전에 헌 짚신을 버리지 마라.	이 속담을 잘 실천하면 천하에 낭인의 수가 아주 줄 것이다.
[1218]	도둑 달을 싫어한다.	불쌍하도다. 암흑의 인간이여.

또, 한편으로는 오해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역의 예가 도처에 눈에 띄는데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한 속담을 중심으로 그 대표적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속담	다카하시의 해석	일반적 해석
50	자다 남의 다리 굽는다	잠결에는 틀리기 쉬움을 말한다.	남의 일을 자기 일인 줄 알고 헛일 하는 경우에 씀.
108	서울이 낭이라니까 과천부터 간다.	과천은 경성에서 30리. 시골사람의 우직함을 말한다.	미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겁부터 남을 이르는 말
192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마음이 넓을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귀여워함을 이르는 말.
292	물에 물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주 잘 섞여 잘 어울림을 나타낸다.	말이나 행동에 변화가 없어 성급다는 말.
309 [854]	서당 개 3년 지나면 詩文에 능하다.	둔재를 비웃는 말이다.	어떤 방면에 아는 것이 없는 사람도, 그 방면에 오래 끼여 있으면 어느 정도 익히게 된다는 말.
361 [904]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백성을 두려워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그 영향이 무섭다는 말.
364 [907]	참새는 죽을 때도 꺾할 뿐(참새가 죽어도 꺾한다)	죽음을 큰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괴롭힘을 당하면 반항하게 된다는 뜻)
388 [930]	죄 없는 두꺼비 돌아 맞아 죽었다(애꿎은 두꺼비 돌에 맞다)	두꺼비는 돌 사이에 숨는 습성이 있다. 목숨은 어떻게도 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다.	남의 분쟁이나 싸움에 관계없는 사람이 뜻밖의 피해를 봄
414 [956]	냉수에 이 부진다	웃겨서 견디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유이다.
476 [1018]	친구 따라서라면 강남까지 간다	강남은 몇 십만리 먼 이국이다. 同心의 강인함을 말한다.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같이 행동함을 이르는 말.
497 [1037]	마흔에 처음으로 버선 신는다(사십에 첫 버선)	시골 사람들을 비웃는 말이다.	1.나이 들어서 늦게 관직이나 일자리를 얻게 됨을 이르는 말. 2.늦어서야 뜻한 바를 이루게 됨을 이르는 말.
542 [1082]	물고기 한 마리가 물 흐른다	간신 하나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뜻이다.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어떤 집단이나 여러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말
[99]	꼬리가 길면 밟히기 쉽다	돈이 많으면 도둑맞기 쉽다	나쁜 일을 오래 계속하면 들통나기 쉽다는 비유
[104]	십년 걸린 공부는 오직 나무야 미타불	승려가 공부 하지 않음을 비웃는 것이다.	오래 고생해서 쌓아 올린 공이 허사가 되었다는 의미
171 [718]	배 먹고 이 닦기	배를 먹으면 충분한데 또 나아가 그 심으로 이를 닦다니 과욕이라는 의미이다.	좋은 일이 거듭해서 생기는 경우를 이룸.
[350]	개미 쳇바퀴 돌듯	반드시 가장자리를 돌아 일주함을 말하는 것이다.	변화나 진보가 없이 늘 제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
[433]	알기는 칠월 귀뚜라미	초가를 7월 귀뚜라미는 스스로 가을이 온 것을 알고 운다. 어떤 일에 앞서 조짐을 보는 것을 말한다.	매사에 유식한 듯 자랑하는 이를 놀리는 말.
[1237]	장옷 쓰고 옛 먹기	남몰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등에 사용한다.	겉으로는 점잖은 체 하며 나쁜 행실을 일삼는다는 말.
[1289]	똥도 따고 남자도 만나고	시골 사람의 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한꺼번에 두 가지 이익을 얻는 것

이와 같은 예는 다카하시가 조선 문화를 숙지하고 조선 민족성의 6가지 키워드를 추출

해냈지만 이러한 오역 사례의 존재는 그가 조선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기반 위에서 6가지 민족성을 운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일반적인 해석을 일독해 보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의 행동을 풍자하는 내용([433], [1237]), 인생에 있어서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104]), 또 이와 반대로 경사가 겹치는 일([171],[1289])도 있다는 것. 그리고 삶의 태도로서 정직을 강조한 속담([99]), 대기만성([497]), 약자예찬([364]), 대인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50],[388],[476]), 노력이나 인내심을 강조하는 속담([108][309][350]), 조선사회에서 굴절된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속담([361])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속담은 사실상 세상사의 부조리나 인간관계의 여러 측면들, 삶의 태도를 풍자하고 반어적으로 묘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다카하시의 오역사례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인의 풍자와 해학 또는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기 마련이어서 일회일비하지 말라는 경구는 읽혀지지 않는다. 그가 서문에서 조선문화를 숙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적어도 속담연구를 통한 그의 조선 문화 이해에는 일면적인 면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5.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속담 연구의 계승

(1) 다카하시의 속담집과 그 이후의 속담집

여기서는 다카하시의 조선 속담집 이후에 편찬된 조선의 속담집에 다카하시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속담 중의 하나인 「가던 날이 장날」에 대한 다카하시의 설명이다.

220[767]行った日が丁度市日 (가는 날이 마침 장날)

주:이 나라의 지방 邑里에는 매 달 정해 놓은 날에 장이 선다. 부근의 산물은 이 날 모여 떠들썩하기는 제삿날 같다. 보통 열흘에 한번으로 정해져 있다. 아무 생각 없이 시골의 이는 곳을 찾아갔더니 마침 그 도착한 날이 그 읍의 장날이라 활기차고 재미있었다는 뜻으로 행운이 오는 것도 이와 같음을 암시하고 있다.

밑줄 부분의 설명을 주의해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연히 갔다가 공교로운 일을 만났을 때 이르는 말」과 의미가 다르므로, 자칫 다카하시에 의한 오역으로 간주해 버리기 쉬운 예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그 이후의 속담 사전들의 설명을 살펴보면,

1) 『朝鮮俚諺』 최원식 新文館 1913

가든 날이 장날이라고 (往하든 日이 市日이라고)

偶然히 出行하얏다가 好期를 值遇하얏다함이라

2) 『조선민속자료 제3집 朝鮮俚諺集』 조선총독부 1926

가든날이장(場)날

行った日が丁度市日 【註】 사정이 좋을 때 쓴다(都合好かったことに云ふ)

3) 『사천년간 조선어해석』 김동진 저 덕흥서림 1928

(가든날이장날이다) 절친한친구세리서로멀리난위여 여러해를맞나지못하엿슴으로 하루는한 편에서 제백사하고차저가보니 그친구가몇칠전에죽어서 그날이맛침장사날이라 시속에공교히 된일을말하면 가든날이장날이라함은장날이안이라 장사날이란말 이니라

4) 『속담대사전』 방중현 김사엽 공편 조광사 1940

가든날이 장(場)날 【解】 생각안은일이 偶然히 잘드라마짐 을 이르미라.

5) 『속담사전』 이기문 편 일조각 1962

가든 날이 장날이라

뜻하지 아니한 일을 때마침 공교롭게 만난 경우를 이룸. 가든 날이 장날이라고 장쇠가 또 다시 엇목판을 걸머지고 이월달에 경상도 땅에를 들어서니 상주 읍에서는 씨름판이 벌어져 있었다.(李無影 農民

오히려 「가든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의 의미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나뉘어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번 김동진과 5)번 이기문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 3)에서 김동진은 장날의 의미를 규명하고 있는데, 『사천년간조선어해석』(1928)에 보이는 김동진의 설명 중 밑줄 부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가든 날이 장날이라는 속담은 공교로운 상황에서 쓰여졌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카하시를 비롯해 1913년에 발표된 최원식의 『朝鮮俚諺』이나 1926년에 총독부에 의해 간행된 『朝鮮俚諺集』, 그리고 방중현 김사엽의 『속담대사전』(1940)이 모두 공교로운 일이 아니라 우연히 좋은 일이 겹쳤을 때에 사용하는 말로 해석하고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 먼저 1926년에 총독부에 의해 발행된 속담집의 설명이 다카하시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은 총독부의 지원을 받으며 조선 문화 연구에 앞장서 온 그의 관여가 쉽게 상정된다 하더라도, 최원식이나 방중현, 김사엽의 경우엔 좀더 고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 속담사상 획기적인 업적을 남긴 것으로 평가되는 최원식²¹⁾이지만 그에

21) 京本高秘 제6894호 검찰행정사무에 관한 기록의 「시대일보 속간에 관한 건」(1924.09.02)에 의해 최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지 않아 정확한 영향관계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910년에 출간된 다카하시의 속담집이 최원식의 속담집에 원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방중현(方鍾鉉, 1905~1952)과 김사엽(金思燁, 1912~1992)은 모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어 및 문학과 출신으로, 방중현은 1935년에, 김사엽은 1943년에 졸업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이들이 경성제국대학에 재학중이었을 당시 다카하시가 이 학과의 교수로 재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역시 이들의 속담 해석에 미친 다카하시의 영향도 간과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2) 다카하시의 속담연구에 나타난 조선의 민족성과 그 이후

다카하시의 속담집에 나타난 조선의 민족성은 그가 서문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조선 민족의 6가지 특성에 의거해 설명되고 있음은 이미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다. 즉 조선인은 말이 많고 뻔뻔하고, 게다가 근로를 싫어하고 게으름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고, 보수적이며, 무사태평하고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또한, 걸치레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면이나 타협하기를 좋아하고 아무 일 없이 화평하기를 바라는 체념의 안이함, 나아가 팔자나 운명의 탓으로 돌리고 그것을 바꾸어 보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소극적, 수동적 자세 등은 조선의 속담연구를 통해 그가 말하는 조선민족의 특성이며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다카하시의 이러한 조선 문화 인식은 그가 조선을 이해하는 중심개념이었다. 그는 그 이후에도 「조선인 국가관념의 변천(朝鮮人國家觀念の變遷)」(太陽 26권 4호 1920. 4)이라는 글에서 「조선인은 신라 이래 스스로가 완전한 독립국이라는 진정한 의의에 있어서의 국가 관념이 일어났던 적이 없」었으며, 조선의 「사대주의는 신라가 당을 섬긴 이래로 전해져 온 전통적 국책이었」다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조선인과 같이 논의를 즐기는 사람은 적다. 따라서 조선인만큼 당파심이 풍부한 사람도 드물다. 만일 조선인이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일이 있다면 제일 먼저 신구파 즉 공화정치파와 왕정파와의 싸움이 일어난다. 다음으로 양민과 평민과의 싸움이 일어난다. 다음에 재산가와 빈민과의 싸움이 일어난다. 또 종교 싸움이 일어난다. 격렬한 다툼 끝이 또 친일파 친미파라는 큰 싸움으로 되돌아가 결국 외국간섭을 초래하여 일본이나 미국에 의지하는 것이 낙착점이다.

라며 조선인의 당파심과 의외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조선인은 역사상 중국의 지배를 면한 적이 없어서 독립심이 없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일반적인 조선 인

식이 시대일보사의 사원이었던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또한 조선은행회사요록(1923년판)에는 주식회사 朝鮮賣藥의 중역에 이사 최원식의 이름이 보일 뿐 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식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일제 강점을 전후한 시기(1910년대) 일본의 엘리트 계층이라 할 수 있는 정치가, 학자, 경제인 저널리스트 등의 한국관은 조선이 상공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산림이 황폐하며, 근로정신이 없고, 교육기관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교통기관도 미비하고 산업이 유치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는데²²⁾ 이것은 속담연구에 나타난 다카하시의 조선관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카하시의 조선관이 후대의 조선의 속담연구자 중에 계승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속담을 통해 우리의 민족성을 밝혀내고자 한 김선풍 씨의 연구²³⁾가 그 예이다. 그는 우리 속담 속에 「범신론적 무현사상, 사대주의 관존민비사상, 척불사상, 중농사상, 절충사상, 무사안일주의」등이 엿보인다고 지적하고, 또 그것을 통해 민족성과 결부시켜 언급하고 있다. 우리 속담을 바라보는 다음과 같은 김선풍 씨의 견해 - 사대주의, 소극적, 수동적, 의외심, 당쟁심, 무사안일주의, 자주, 독립정신의 결여 등으로 파악되는 민족성- 등은 다카하시를 비롯한 1910년대의 총독부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대륙의 큰 세력 때문에 우리 민중의 역사는 어쩔 수 없이 힘센자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에 기울었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주변성을 띠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남에게 붙어먹는 寄生心理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는 유교식 비굴 순종의 강요하에서 조성된 하나의 병적 사회기풍이었다고 본다. 이 같은 사회 사대사상은 진일보하여 의외심과 朋黨과 음모를 꾸며냈고 한 민족의 고유 성품이라할 내향적 기질과 어울려서 결국 지나친 음성적 열등의식, 편협심, 가족중심, 무책임감[무사주의]이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유교적인 형식주의나 계급주의 체면존중사상은 우리 민족성을 더욱 우울하게 만들 뿐이었다. 따라서 속담 속에서도 이와 같은 사대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많고 유교적 체면존중사상을 나타내는 속담들이 많았다.[중략] 또 장수라면 김유신도 있고 이순신, 김종서, 남태 장군도 있건만 특하면 장비, 조자용의 이름을 들먹였고 항우의 이름을 내세웠다.[중략]우리 조상들이 산 하면 태산 숭산이요, 시하면 두보 이대백이요, 장군하면 장비, 항우를 들었는지 또 어찌하여 중국 것을 우리 것의 상위개념으로 놓고 보았는지 발상부터가 허약하다. 이는 역시 지주정신이 희박했던 데에 그 원인을 돌릴 수밖에 없다.²⁴⁾

즉 다카하시가 그의 속담연구를 통해 규정한 조선인의 부정적 민족성이 비판 없이 오늘날의 속담연구자에게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현재 한국의 학

22) 정상우 「1910년대 일제의 지배논리와 지식인층의 인식-일선동조론과 문명화론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46호 2001)

23) 김선풍 「속담에 나타난 민족성」 (『한국민속학』 5권 1호 1972), 「속담」 (『한국민속대관 6권 [구비전승 기타]』 (고대민족문화연구소편 1982)) 등

24) 김선풍 「속담」 『한국민속대관 6권 [구비전승 기타]』 고대민족문화연구소편 1982

문적 기반이 일제시대 일본인 지식인이 구축해 놓은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6. 맺음말

이상, 한국의 俗談編纂史上 등한시되어 온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 민담집 부록 속담』(1910), 『조선 속담집 부록 민담』(1914)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수록된 속담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다카하시의 속담연구가 본격적인 속담자료집이 없었던 시기에 편찬되고, 이후 산발적으로 간행된 한국의 속담사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주목해 보았다. 또한 그의 조선 속담 연구의 목적이 조선총독부의 시정자료 조사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내면과 생활을 이해하는 데에 있었던 만큼 그의 조선 문화에 대한 인식이 이후의 속담연구에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다카하시는 조선 속담 연구에서 고착성과 종속성을 근본 전제로 하여, 조선 문화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부정적인 조선 문화 인식을 도출하여 소극적이고 타율적이고, 근면하지 못하다는 등의 편협적이고 부정적인 한국인상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그것을 합리화 시켰다. 즉 다카하시의 속담연구를 통한 조선 인식은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와 병행하여 최종적으로는 ‘조선인의 후진성’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가 조사한 속담내용은 반드시 그가 확정한 6가지 부정적인 민족성에 부합하는 내용은 아니었다. 그는 조선의 속담이 담고 있는 다양한 측면을 도외시한 채 조선문화를 철저히 부정적 측면에서의 역기능만을 부각시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총독부의 막대한 지원 하에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조선인의 특징적 성격’을 일방적으로 규정하였는데 다카하시가 속담을 통해서도 발견된다고 주장하는 조선인의 특징이 어떤 시각과 의도 아래 포착, 도출되었는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

조선의 풍습, 사회상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행해져 온 다카하시의 조선 속담 연구는 당시의 조선의 문화나 풍속, 정치, 경제, 사회, 사상,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근대 한국의 모습을 들여다보는데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 당시 조선에서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던 속담을 학문적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속담연구에 있어서의 다카하시의 공헌이 적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다카하시의 속담 연구에 의해 왜곡된 조선문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인 것은 해방이후 우리는 그의 속담연구의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의 속담에 드러난 우리의 자화상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에 주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 올바른 시각과 입장에서 서술된 제대로 된 한국문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다카하시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부분을 제대로 읽어내고 비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강진철(1987) 「停滯性理論 批判」 『韓國史市民講座』 창간호 일조각
- 김동진(1928) 『사천년간 조선어해석』 덕흥서림
- 김상홍(1986) 「茶山의 「耳談續纂」 『한문교육연구』
- (1986) 「星湖의 百諺解考」 『교육논총(단국대)』 2권
- 김선풍(1972) 「속담에 나타난 민족성」 『한국민속학』 5권 1호
- (1982) 「속담」 『한국민속대관 6권 [구비전승 기태]』 고대민족문화연구소편
- 다카하시 도오루 지음 조남호 옮김(1999) 『조선의 유학』 조합공동체 소나무
- 다카하시 도루 지음 이형성 편역(2001)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유학사-일제 황국사관의 빛과 그림자』 예문서원
- 박광현(2003) 「경성제대 ‘조선어학조선문학’ 강좌 연구-다카하시 도오루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비교 문학의 전망』 동국대학교 출판부
- 심재기 「俗談辭典 編纂史草」 『새국어생활』 제 4권 제 2호 1994
- 신명숙 「俗談研究의 課題와 展望-研究史를 中心으로-」 『국문학논집』 16호 1999
- 윤미길 (1995) 「洪萬宗의 道家思想과 歷史意識-五旬志를 中心으로-」 『논문집(원광대)』 29
- 윤사순(1976) 「高橋亨의 韓國儒學觀 檢討」 『韓國學』 제12집 중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1977) 「韓國儒學의 諸問題」 『韓國學報』 제6집 一志社
- 이기백(1987) 「半島의 性格論 批判」 『韓國史市民講座』 창간호 일조각
- 이배용(2001) 「서양인이 본 한국근대사회」 『이화사학연구』 28권
- 이태진(1987) 「黨派性論 批判」 『韓國史市民講座』 창간호 일조각
- 이하배(2004. 11)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 유학’ 읽기 비판」 『동양사회사상』 10권
- 이형성(2001)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의 조선유학사 연구의 영향과 극복」 『韓國思想論文選集 201 日帝時期의 宗教界와 歷史學』 불함문화사
- 정상우(2001) 「1910년대 일제의 지배논리와 지식인층의 인식-일선동조론과 문명화론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46호
- 최덕수(1997) 「개항기 서양이 바라본 한국인·한국역사」 『민족문화연구』 30집
- 최영성(2000. 5) 「高橋亨의 韓國儒學觀 研究」 『철학연구』 74집
- 최원식(1913) 『朝鮮俚諺』 新文館
- 최혜주(2005. 3) 「일제강점기 조선연구회의 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2권
- 조선총독부편(1926) 『조선민속자료 제3집 朝鮮俚諺集』

방중현(1940) 김사엽 공편 『속담대사전』 조광사
이기문(1962) 『속담사전』 민중서관
權純哲(1997) 「高橋享の 朝鮮思想史研究」 『埼玉大學紀要 教養學部』 33卷1号
高橋享(1909) 『韓語文典』 博文館
『朝鮮學報』 (1959) 제14집 高橋享先生頌壽記念号
(1968) 제48 高橋享先生記念号
高橋享(1920.8) 朝鮮改造の根本問題、太陽 26卷 9号
(1920.4) 朝鮮人國家觀念の変遷 太陽 26卷 4号
高橋享著 ことわざ研究会編(2003.10) 『ことわざ資料叢書 第11卷 朝鮮の俚諺集附物語』

K C I

要 旨

本考は高橋亨の朝鮮研究の中で、特にこれまで取り上げられることのなかったことわざ研究を中心に検討したものである。具体的には高橋亨の『朝鮮の物語集附俚諺(1910)』、『朝鮮の俚諺集附物語(1914)』が、それまで本格的なことわざ資料集のなかった時期に編纂され、以降韓國のことわざ集の成立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ているかについて検討してみた。また、高橋亨の朝鮮のことわざ研究が總督府の施政資料調査の一環として行われたものであることに注目し、彼の朝鮮文化に對する認識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り、さらにそれが以降の韓國におけることわざ研究にどのように受け継がれているかについて考察した。

その結果、高橋亨のことわざ集は當時の朝鮮の文化、政治、經濟、社會、思想、宗教に至る多様な分野を含んでおり、19世紀後半から20世紀初めの近代韓國の様子が窺われる重要な資料であることに間違いはないことが確認できた。がしかし、高橋亨は朝鮮文化の獨自性を否定した上に、朝鮮のことわざの含み持っている多様な側面を度外視し、徹底的に否定的な側面での逆機能だけを浮彫りにした捉え方をしていることも明らかになった。

當時の朝鮮ではまだ注目されることのなかったことわざを取りあげ、新しい學問の領域を切り開いた高橋亨の業績は決して看過すべきものではないものの、高橋亨によって朝鮮文化の否定的な側面だけが強調されてしまったことも否めないように思われる。もっと深刻なのは彼のことわざ研究によって曲げられた朝鮮認識がいまだに批判なく私たちの中に受け入れられ、否定的な自畫像を創り出していることであろう。

これからの正しい韓國文化論の形成のためにも高橋亨のような植民地期の日本人學者による研究をより多様な角度から見直す作業が先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る。

キーワード：高橋亨、諺、近代化、朝鮮、朝鮮文化、朝鮮人觀、朝鮮の物語、朝鮮の俚諺、京城帝國大學、俗談

투 고 : 2005. 11. 30
1차 심사 : 2005. 12. 10
2차 심사 : 2005. 12. 31

住 所 : (300-190) 대전시 동구 흥도동 3-18
電 話 : 042-622-6158/019-9233-6667
e-mail : bbmkpark@hanmail.net